

# 집에서도 실감형 극장 즐긴다... KT, VR 확장 가속화

## KT '기가 라이브 TV' 12일 출시

올레tv 연동한 가상현실 상품 선배 라이브 온 360 등 전용 콘텐츠 준비 무게감 최소화해 활용성 더 높여

미래 거실 풍경이 현실화된다. KT가 '올레tv'를 연동한 VR(가상현실) 상품을 내놓으면서다. VR 보급화와 함께 국내 VR 시장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오는 12일 '기가 라이브 TV'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레tv 콘텐츠를 VR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기존 올레tv 콘텐츠를 VR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R 전용 콘텐츠도 새로 준비했다. 프로농구와 영화 등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라이브 온 360'과, 게임사 드래곤 플레이와 공동 개발한 '스페셜포스 VR' 온라인 버전 등이다. VR 콘텐츠를 모은 '월드 VR'과 유튜브 방송도 마련했다. 인디게임 등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VR 상품인 기가라이브TV를 출시하고 시장 선점을 노린다.

/KT

단말기 구매 가격은 47만원이다. 예약 구매시 50% 할인해준다. 이용요금은 내년 3월까지 일부 영화·게임을 제외하고 무료로 제공된다. 결합 상품 도입 여부는 내년 소비자 반응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 ◆'KT표 VR', 쓸만할까

일각에서는 VR 서비스가 선부르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VR가 초고해상도 영상

을 필요로 하는 만큼, 5G가 실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느린 전송속도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자신했다. 국내 유선 인터넷이 이미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기 충분한 속도이며, 콘텐츠도 대부분 UHD급으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속도 저하로 영상이 끊기는 등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 트래픽에 따라 화질을 잠깐씩 떨어뜨리는 기술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VR 콘텐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미 KT는 기가라이브 TV 콘텐츠 확보를 위해 25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대기업뿐 아니라 드래곤플레이, 투토키, 오렌지베리 등 중소 업체들과도 손을 맞잡았다.

### ◆가볍고 단독으로도 쓸 수 있는 VR 단말기

기가라이브 TV는 중국 피코사가 만든 G2로 이용할 수 있다. 퀵캠 스냅드래곤 835 프로세서에 3K LCD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출력하는 제품이다. 기기와 컨트롤러에는 9축 센서를 달았다. 고급형 VR 수준 스펙이다.

특히 KT는 기가라이브TV가 무게감을 최소화해 활용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총 중량은 268g이지만, 배터리팩을 헤어밴드 뒤쪽에 삽입하면서 무게를 앞뒤로 양분한 것이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함께 써야 하는 다른 VR과 달리 올레tv와 한 번 연동하면

기기를 쉽게 단독으로 쓸 수 있게 했다. 고용량 영상을 옮겨담는 수고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대 이용 시간은 약 3시간이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3500mAh를 사용했다. USB-C로 충전할 수 있다.

### ◆VR 시장 커지나

기가라이브TV는 국내 VR 콘텐츠 업계에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KT는 기가라이브TV 콘텐츠 사용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인디개발자에도 합리적으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광과 교육 등 분야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KT는 기가라이브TV를 가정뿐 아니라 호텔이나 교육 시설 등에 보급하는 등 B2B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IPTV 시장 VR 도입이 빨라질 수도 있다. 현재 SKBLG유플러스는 VR 서비스 론칭 계획은 없다. 다만 각각 옥수수과 U플러스 비디오포털에서 VR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는 만큼, 기가라이브TV 반응에 따라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작고 다부진 자동차계의 '과하마'

(果下馬)

### 자동차 시승기

#### 르노삼성 '트위지'

지난해 출시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4륜 전기차 트위지가 복잡한 도심 속 운송수단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00% 무공해 차량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귀여운 디자인은 트위지만의 매력이다.

공차중량 450kg의 트위지를 타고 집 근처 주택가 골목 사이를 주행했다. 중·대형 세단이 진입하기 힘든 좁은 길도 능숙하게 진입했고 소음도 없었다. 그 모습은 마치 크기가 작아 과일 하나 아래로 지날 수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토종말 '과하마'를 연상하게 했다.

복잡한 도심 속 새 운송수단 부상 소음 없이 좁은 길도 거뜰히 진입 일반 플러그로 차량 충전도 간단

트위지는 최고출력 12.6kW, 최대토크 5.8Nm으로 125cc 스쿠터의 가속성을 낸다. 최고속도는 시속 80km다.

시승을 진행하며 좁은 골목길, 관광지, 한적한 길가 등을 다니는데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공업무, 순찰, 배달, 투어 운영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적합해 보였다. 크기도 이륜차와 비슷해 주차장 한 칸에 2~3대까지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남았다.

르노삼성자동차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들은 트위지가 좁은 골목 주행이 쉽고 주차 공간 절약 효과가 커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할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차량 내부를 살펴보면 시트 구성이 앞뒤로 되어 있다. 최대 2명까지 탑승 가능하지만 180cm가 넘는 성인 남자 2명이 타기에는 공간이 넓지 않았다.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

보호용 캐빈 루프는 일종의 큰 헬멧 역할을 했으며 창문 액세서리도 장착돼 있어 비바람 걱정도 없었다.

계기판에는 배터리 잔량, 변속기 표시등, 속도, 시간, 순간 에너지 소비 및 재충전 상황을 표시하는 에코미터 등 기본적인 요소만 나타내는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자동 변속기는 스티어링 휠 왼편에 버튼 식으로 위치한다. 주행(D), 중립(N), 후진(R)의 세 가지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핸드 브레이크는 차량 왼편 안쪽에 짧은 봉 형태로 자리 잡았다.

차량 충전도 간단했다. 차 앞머리 덮개 밑에 숨겨진 충전 케이블을 일반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된다. 가정용 220V 소켓으로 별도의 충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3.5시간에 완충되며, 주행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회 충전으로 50~80km(정부 공인 상온 복합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60km) 정도 이용할 수 있다.

트위지의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은 6.1kWh로 보통 전기차 배터리 용량인 28kWh보다 작다. 하지만 전기차가 보통 1kWh로 약 7km 정도를 달리는데 비해 트위지는 16km가량 주행할 수 있다.

트위지는 모터와 구동축이 후륜 주변에 위치한 후방 엔진, 후륜 구동시스템을 택했다. 여기에 네 바퀴가 개별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서스펜션 구조가 더해졌다.

/정연우 기자

## 두산중, 700억 규모 연료전환사업 수주

### 200MW급 영동화력발전 2호기 바이오매스 연료 방식으로 전환

두산중공업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약 700억 원 규모의 영동화력발전 2호기 연료전환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979년 준공된 200MW급 영동화력발전 2호기를 석탄연료 방식에서 바이오매스 연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보일러 등 기존 설비를 교체해 오는 2020년 6월 내 전환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환사업이 끝나면 영동화력발전소에 적용될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 석탄연료 대비 65~75%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135만 톤 가량의 이산화탄



영동화력발전소 1·2호기

소를 감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125MW급 영동화력발전 1호기 연료전환사업을 수주해 2017년 6월 준공했다. 이번 2호기 전환사업이 완료되면 영동화력발전소는 국내 최대 설비용량인 325MW급 신재생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목진원 두산중공업 파워서비스BG장

은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동화력 1, 2호기 및 보령화력 3호기 등 기존 발전소 연료전환과 성능개선공사를 거듭 수주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향후 국내외 발전소 성능개선공사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LG유플러스, 내달 1일 5G 전파 쏜다

### 서울·수도권 셀 설계 완료 내년 3월 이후 서비스 시작

LG유플러스는 내달 1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5G 전파 발사를 시작하고 내년 3월 이후 스마트폰을 통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전파 설계 프로그램 전문회사인 프랑스의 포스크와 손 잡고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셀(cell) 설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동안의 준비를 통해서다. 셀 설계는 최상의 통화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5G 장비 위치와 안테나 방향 각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레이트래싱 기법은 전파가 전달되는 경로를 추적, 건물의 높이와 위치, 모양을 고려해 전파의 반사, 굴절, 회절을 계산해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안정적인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G 셀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예측한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국내 중·소통신 장비사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 5G 오픈랩을 열 예정이다.

선형 서비스 개발을 통한 5G 영역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한양대학교와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인 기자 silkni@

### 대우조선해양

## 4년 만에 대졸 채용 블라인드 방식 도입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중단해온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4년 만에 재개한다. 올해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우조선은 오는 5~16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채용 직군은 설계, 생산관리, 재무·회계, 경영지원, 구매, 연구개발(R&D), 영업 등 전 분야다.

이번 대졸 공채에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도입된다. 서류 심사 접수 과정에서 R&D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출신 학교명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번 채용 재개는 조선업황 개선과 함께 경영정상화 작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성문 기자 ysw@